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금년도 교회행사 주요 일정 확정

금년도 우리 교회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에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 지난 주일부터는 어린이 저녁예배가 신설되어 특활을 겸한 어린이 연합예배를 매주일 저녁 5시에 드리고 있다. 2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새가정부도 운영될 예정이다.

새 예배당 기공식은 4월 또는 5월로 예정돼 있다. 세부설계가 완성되고 건축회사가 확정되는대로 기공식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수련회와 세미나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것이며 ‘홍해작전’, ‘비전 2000운동’ 등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들도 좀더 발전적인 기획과 실제적인 운영을 추구, 내실을 기할 것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주최로 계속되어 온 전국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3월과 9월에 각각 제 13학과 14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5월 말에는 제 9차 김치

(KIMCHI) 신학세미나가 개최된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며 피택장로들은 소정의 교육을 거쳐 교회설립 7주년 기념일인 11월 22일에 장립식을 갖는다.

한편 매월 첫 주 찬양예배는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린다. 월별 헌신예배 주관부서는 도표와 같다.

또 매달 마지막 주에는 새가족환영회를 통해 새가족의 신앙생활과 교회적응을 돕는 기회를 갖는다.

학습·세례식은 격월로 거행된다.

당회는 이처럼 올해 주요 행사일정을 정하면서 교회적으로는 새 예배당 건축의 과제를 안고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때이니 만큼 모든 행사의 재정을 최대한으로 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998년도 주요 행사 일정

1월	· 4일 / 신년감사예배(성찬식) · 4일 / 공동의회(예·결산 심의의 건) · 4일 / 순결서약식 · 4일 / 어린이 주일저녁예배 시작 · 5일 ~ 10일 / 청지기수련회
2월	· 7일 / 새가정부 개강 · 교회학교별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
3월	· 21일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30일 / 제 13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6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4월	· 5일 / 부활절 예배(성찬식) · 9일 / 교구일꾼수련회
5월	· 10일 / 가족찬양대회 · 18일 / 제 9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 31일 / 공동의회(장로 선거)
6월	· 6일 / 홍해작전 개전(25일까지 20일간) · 6일 / 찬양대신상수련회
7월	· 5일 / 맥추감사절(성찬식) ·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8월	· 10 - 13일 / 농어촌 전도대 파송
9월	· 7일 / 제 1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월	· 4일 / 비전 2000운동 시작 (11월 23일까지 50일간) · 21 ~ 22일 /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
11월	· 1일 / 성경암송대회(교회학교별) · 8일 / 성경암송대회(본선) · 15일 / 추수감사 찬양예배 · 22일 / 추수감사절·교회설립 5주년(성찬식) · 22일 / 장로 장립식 · 29일 /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특선
12월	· 6일 /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식 · 13일, 16일 / 찬양대원 임명식 · 20일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20일 / 성탄축하 찬양예배 · 24일 / 성탄축하의 밤 · 25일 / 성탄절 예배

“IMF시대의 기독교청년” 토론회

제 1회 대학·청년부 연합토론회가 18일(주일) 오후 1시 4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IMF시대의 기독교청년”으로 현 경제난에 대해 기독교청년으로서의 책임을 자문해 보고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지키려는 결의를 하게 된다.

토론회는 IMF구제금융일지, 대학생이 보는 IMF, 직장인이 체험하는 IMF, 대학·청년부 여론조사 발표 등 대학생과 청년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다. 이어 이만열전도사(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가 “IMF 시대의 기독교청년”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을 비교하게 된다.

질의 응답과 그룹토론을 거쳐 실천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결의하는 다짐의 시간도 갖는다. 또 경제적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세속화·물질화되어 선지자적 사명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정치·경제의 책임을 맡은 관리들을 위해, 결의사항 준수를 위해 등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가시적 참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대학·청년부에서는 토론회에 앞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슴에 배 조각을 달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는 관심을 가진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사야

가증한 예배

1장 10 - 17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효과적인 부르심(effectual calling)과 심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 심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소돔의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 에스겔서에서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여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16:49, 5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의 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에 찬 그들의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사랑하는 일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에게 나쁘히 행할 바를 행치도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선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번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 중에는 찢어진 것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이 없었으며 오직 살지고 온전한 것만 드렸습니다. 그들은 법대로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모두 지켜 바쳤습니다. 특별 성회까지 열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를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뭇의 껍을 흘린 이세벨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장로들은 오히려 그 일에 동참해서 악을 행했습니다(15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

념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악을 버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행치 않으면 다시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스스로 씻으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이다... 너희의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사1:10-17)



아중운 목사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함이 없는 가증한 이스라엘의 제물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물만 허비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마15:9).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제물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아무리 향기 나는 분향을 하고 엄숙한 집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치 못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증하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2.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

지는 회개를 말합니다.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회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등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므로 이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공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평무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원통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증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고서

흐뭇했던 첫 어린이 주일저녁예배

조대영 선생(초등부 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에는 출석을 잘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상상을 하기로 했다.

오늘 어린이 저녁예배 시간에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다. 어린이들이 속한 각 부서의 홍보와 부모님들의 관심 어린 권고로 저녁예배 시간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사랑의 수고로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할 교사들의 참여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 순례자 컬럼 ✦

크리스찬의 지성

진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성사회는 정당성보다 진실성이 강조되며 따라서 사실과 진리만이 주장된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는 낭만과 청춘이라는 특권 아래 숨겨진 감정적 흥분과 독단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있게 긍정적으로 개발시키고 활성화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과제다.

크리스찬 지성인은 세계정신을 갖춘 균형잡힌 신앙인으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변수와 상수를 동시에 보되 변수에서 상수를 보고 상수 속에서 변수를 읽어야 한다.

지식은 가끔 영락을 누리고 자칫 파멸을 가져올 수 있으나 지성은 광야의 야인처럼 진실을 외치지만 폭력이나 이기적 대화나 완전주의는 피한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주일저녁예배. 홍보도 사전 준비도 충분치 않아 '과연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바쁘고 복잡해진 도시생활 속에서 주일 저녁예배는 어른들의 인식에서조차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차제에 어린이 주일예배가 생긴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바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더욱이 주일 오전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늘 아쉽게 마쳐야 하는 성경공부를 동화나 성경, 인형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린이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컸다.

첫번째 어린이 주일저녁예배 시간. 사전 홍보라고는 오전 예배 때 잠시 광고한 것뿐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려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참여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찬양예배 드리고 계신 부모님을 기다리기 위해 참석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저녁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에 나온 경우여서 그들의 성의와 열심에 교사들은 놀라며 매우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찬 목사의 대화식으로 진행된 설교시간에 아이들은 성경을 찾아가며 진지하게

응답했다. 정정숙 권사와 조선영 선교사, 정성국 선생이 준비한 인형극을 보는 어린이들의 입가엔 웃음이 넘쳐났다. 그것을 지켜보는 교사들도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의 정겨운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유아·유치·유년·초등부의 부서별 모임을 통해 교사인 조숙경(유아부), 조선영·노애리(유치부), 김형모(유년부), 김상원·조대영(초등부) 그리고 정정숙 권사와 정성국 선생의 인도로 소개의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다짐했다.

여러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니 아이들은 예배나 성경말씀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았다. 교사들 역시 자기 부서에만 신경을 쓰던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연합하여 어린이들 영혼에 관심을 쏟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출 수 있었다.

어린이 저녁예배에 참여했던 여러 부서의 교사들은 첫번째 예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교사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최선의 봉사를 한다면 더 발전된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

“손자의 말문을 열어 주옵소서”

박용현 집사(1교구)

내 나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며 돌이켜 생각하니 너무나 죄 많은 세월을 살아온 탓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두려움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속죄의 길은 찾을 길 없고 내 공덕이라곤 손톱만한 것조차 찾을 수 없는 헛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님의

서 허락하신 생명 - 귀여운 나의 손자 회옥이, 어미없이 자라온 지 내 해를 맞았건만 아직도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지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회옥이에게 강건하고 온전한 육체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많은 허물과

크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예배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께 두손모아 감히 한 가지를 더 기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거스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설령 이 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만길혹암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한없는 가시밭에 던지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롭게 태어난 어린 생명에게만은 내 죄값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문을 열어주시사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가 신실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벌레같이 미천한 할애비의 간절한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하잘것없지만 이 늙은이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100교회 운동"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이하 '100교회운동')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수록 더욱 이웃과 나누고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와 교회 내 기관들이 예년과 같이 '100교회운동'에 참가신청을 해왔다.

10일 현재 전도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원자는 농어촌 55개 교회와 결연이 되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후원자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은 물론 올해는 지원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는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의 지역을 재검토해서 결연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참여했던 후원자들도 올해의 100교회운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0교회운동은 우리 교회 설립 3주년이었던 1994년도에 결의되어 199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에 힘을 주어 자립하도록 도우므로써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목회의 장소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도시의 교회나 농어촌의 교회가 모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몸이며,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이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 100교회운동에 참여할 후원자를 1월 한달 간 계속 접수한다(문의: 전도위원회 · 이상진목사).

지원금은 한 교회 당 10만원으로 개인이나 가정, 위원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가 개별적으로 혹은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은 '농어촌 100교회운동'이라고 표기된 봉투를 사용하여 주일 헌금시간에 헌금

함에 넣으면 된다. 100교회 운동의 지원금은 매월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농어촌 각 교회로 송금되므로 그 달의 지원금은 셋째 주일까지 현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신청을 한 올해의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농어촌교회와 결연이 확정된 후원자 명단은 다음 주에 게재할 예정이다.

◇가정 및 개인 = 홍순복 이영기 · 이영숙 임상현 · 서희숙 김태기 · 윤문자 박정수 강종찬 · 권귀옥 박성현 · 김은숙 전기섭 · 원영애 김상철 · 최원자 신용식 · 김신영 김종자 박철훈 · 이경희 홍정호 · 우선자 최 완 김중복 김복녀 임경민 · 임규연 · 임연주 윤봉준 · 김명화 박두호 · 한성옥 오윤걸 · 오선혜 · 오명걸 안인호 · 이명신 정동호 · 김정임 임희춘 · 신정순 · 이영주 하인선 · 남태순 정무균 · 이영희 정하자 박금재

◇위원회, 다락방, 기관 = 요한6선교회 · 에스더3전도회 베드로1선교회 논현5,6다락방 베드로3선교회 반포1,2,4다락방 베드로6선교회 루디아6전도회 가브라엘찬양대 호산나찬양대 루디아1전도회 에스더5전도회 · 에스더5전도회 · 마리아4전도회 에스더4전도회 요한5선교회 서초1,2다락방 루디아5전도회 루디아1전도회 한나1전도회 바울6선교회 차량관리부 사랑의회 분당2,3다락방 루디아2전도회 바울1선교회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성경 일년일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가 다시 시작됐다.

'주간성경공부'는 일년만에 성경 66권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의 일정 부분을 매주 제시하고 문제를 풀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매주 주보와 함께 배부되는 문제지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문제지를 작성하여 교회입구에 설치된 주간성경공부제출함에 넣으면 된다. 채점된 문제지는 다음 주일 교구별 함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이 공부를 주관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간성경공부를 통해 한 주간 동안 같은 성경본문을 읽으며 함께 성경을 일독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2일(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세미나에서 개회설교를하며 13일(화)엔 세계선교협의회, 16일(금)엔 서울 여대 이사회에 각각 참여한다.
- ◆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오늘은 정무균 · 이영희 집사 가정에서, 지난 주일엔 이종운 목사 · 홍순복 사모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 우리교회의 행사를 위해
2. 농어촌 자매교회와 100교회운동을 위해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